

#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상문화교류

## - 「37년 유희몽(三十七年遊戱夢)」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김병민\*

### 〈차 례〉

1. 들어가며
2. 만남과 연대(連帶): 황개민의 대동당 설립과 한국애국지사
3. 공존과 협력: 황개민과 한국독립운동
4. 믿음과 격려: 황개민의 시문(詩文)으로 보는 한중 애국지사의 우애
5. 나오며

### [국문초록]

대동당(大同黨)은 1916년 한중지사들이 일본에서 공동으로 세운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을 취지로 한 국제적 항일단체였다. 1917년 12월에 이르러 대동당 본부는 중국 상해로 옮겨졌다. 대동당 주요 책임자 황개민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왔고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지사들과 여러 방면으로 교류를 이어오면서 도타운 우정을 나누었다.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상문화교류는 한중 근현대문화교류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기었다. 그들은 혁명사상과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왔다. 본고는 근년 중국 학계에서 처음 공개된 황개민의 회고록 「37년 유희몽(三十七年遊戱夢)」을 중심으로, 기타 새로 발굴한 산문, 시가, 서한 등 중요한 역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상문화교류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의 교류와 협력이 한중 근현대문화교류사에 미치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부 교수.

[주제어] 황개민, 대동당, 한국 망명지사, 한중교류, 「37년 유희몽(三十七年遊戲夢)」

## 1. 들어가며

한중 근현대 관계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 근대 민주인사 황개민(黃介民)<sup>1)</sup>이 이끌었던 대동당과 중국으로 망명했던 한국지사들의 교류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시사한다. 황개민은 한중 민주인사들과 함께 대동당을 세웠고 초기에는 신아동맹당으로 불리었다. 대동당은 한국 망명지사 신규식과 중국 신해혁명당 진영사 등이 주도하여 세운 신아동맹제사에 이어 한중 근현대애국지사들의 대화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국제적 진보단체였다. 1910년대 후반기로부터 1920년대 초반에 이르는 발족 초기에는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말미암아 점차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영향력도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까지 대동당은 명맥을 이어갔다.<sup>2)</sup> 대동당의 한중 교류사적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면, 한중 애국지사들이

1) 황개민(1883~1956), 원명은 時, 후에 覺으로 고쳤다. 자는 定保이고 호는 介民이다.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였고 손중산을 만나 중화혁명당에 가입하였다. 1915년 제일문유학생총회 회원인 역매원(易梅園), 수역산(仇亦山) 등과 함께 이대소(李大鈞), 임백거(林伯渠) 등을 초청하여 을묘학회를 설립했다. 이대소, 고일함(高一涵) 등과 함께 유학총회에서 간행했던 잡지 『民彝』 편집위원을 맡았고 원세개가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을묘학회는 그 후 중화학회와 손잡고 신주학회(神州學會)로 개명하였다. 1916년 7월, 한중 민주인사를 조직하여 신아동맹당을 결성하였다. 1917년 12월, 중국 상해에서 신아동맹당 본부를 설립하였고 그 산하에 여덟 개의 부를 두었으며 이때 당원 수가 백 명을 넘어섰다. 1919년, 신아동맹당은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1920년 1월 30일, 신아동맹당은 대동당으로 개명한다. 황개민은 선후로 『구국일보(救國日報)』 편집위원, 중화공업협회(中華工業協會) 총무과 과장, 강서성(江西省) 수리국(水利局) 국장 및 재무처장, 중앙공무원징계위원회 회원 등 직무를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강서성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강서성 검찰청 부청장 등 직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救國的方法』(1918), 『粵遊百韻』(1918), 『三十七年遊戲夢』(1920) 등이 있다. 그의 맏아들 黃志良이 편집한 『黃介民遺稿選集』(2011) 등도 출간되었다. 1916년, 대동당(신아동맹당)의 설립으로부터 1945년 한국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황개민은 줄곧 한국독립투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2) 대동학회는 대동당의 별칭인 것으로 보인다. 1925년 황개민은 대동학회의 이름으로 박은식 제문과 전기를 썼다(황각, 『朴殷植祭文』, 『朴殷植傳贊』, 『五九』 제12기, 1926, 86~89쪽; 『大同學報』 1929년, 제1기, 1925, 65~67쪽). 황개민은 조소앙의 『김상옥전』 서문도 대동학회의 이름으로 썼다(조소앙, 『김상옥』, 三一印書館, 1933). 조소앙의 『유방집(遺芳集)』 서문도 역시 대동학회의 이름으로 썼다(조소앙, 『유방집(遺芳集)』, 대동학회, 1933). 황개민은 1954년과 1955년에 선후하여 『대동학

전근대의 사상적 속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스스로 혁명적 주체가 되어 다차원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다. 중국 근대애국지사이자 대동당의 설립자 황개민은 30여 년간 한국 독립투사들과 인연을 맺고 근대화 운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설립과 활동,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 내 독립투쟁, 잡지 발간 및 저술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교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0년과 2011년, 황개민의 유고 『37년 유희몽』과 일부 서신, 시가를 아들 황지량이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sup>3)</sup> 대동당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 이단양의 『강개한 슬픈 노래 대동을 노래하네 - 중화민국시기 대동당에 대하여』<sup>4)</sup>가 대표적이다. 이단양은 황개민의 회고록에 근거하여 개인 이력, 대동당의 연원 및 조직 구성, 취지와 방침, 설립목적 등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대동당과 소련 및 모스크바 국제당과의 관계, 대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동당의 설립 취지에 관하여 근대의 아나키즘 사상요소가 들어있지만 결코 무정부주의 단체가 아님을 피력하면서 정당보다는 사회단체의 성격이 더욱 짙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동당에서의 한국애국지사들의 역할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단양의 논문은 대동당 연구뿐만 아니라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 시야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외학계에서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

---

회 설립기념일 소감, 『대동학회설립 40주년 소감』 등 시에서 대동당-신아동맹당 기념일을 대동학회의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황지량 편, 『황개민 유고선집』, 2011). 1920년대 중후반 이후로 황개민은 대동학회의 명의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동당이 정당보다도 사회단체의 성격이 더 짙었기 때문에 대동학회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이 더욱 편리했고 해방 후에는 대동당을 운운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3) 황지량 정리 『37년유희몽』 『三十七年遊藝夢』, 황개민,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 140~196쪽; 황지량 정리 『황개민 신고선』, 『대동당 자료』,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 171~197쪽; 황지량 편, 『황개민유고선집』, 2011.

4) 이단양, 『강개한 슬픈 노래 대동을 노래하네 - 중화민국시기 대동당에 대하여』, 『진양학간(晋阳学刊)』 제2기, 2019, 33~57쪽 참조.

상문화교류에 대한 뚜렷한 연구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독립운동사 혹은 한중 근대문화교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본고가 주목한 관계론적 연구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중국 애국지사들이 협력하여 항일운동을 펼친 행적은 한중관계에서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역사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년 중국 학계에서 처음 공개된 황개민의 회고록 『37년 유희몽(三十七年遊戯夢)』<sup>5)</sup>을 중심으로, 기타 새로 발굴한 산문, 시가, 서한 등 중요한 역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관계론적 시점으로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사상문화교류의 내용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로 대동당을 둘러싼 황개민과 한국지사의 관계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대한 황개민의 지지, 그리고 황개민의 시문을 통해 본 한중지사의 혁명적 우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 2. 만남과 연대(連帶) : 황개민의 대동당 설립과 한국애국지사

대동당은 발족 초기 신아동맹당으로 불리었고 1920년에 이르러 대동당으로 개명했다. 신아동맹당은 1916년 7월 8일, 중국 민주인사 황개민이 일본에서 세운 진보적 혁명단체였다. “아시아의 큰 국면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기치하에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sup>6)</sup>을 당의 취지로 삼았다. 구체적인 방침은 “국내에서 평민혁명을 주도하고 공·농·상·학이

5) 황개민은 1920년부터 『37년 유희몽』을 집필하기 시작하였고 이 글이 완성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으며 전문은 4만 5천 자 좌우에 달한다. 이 글에는 1920년대 말까지 황개민의 경력과 사회, 정치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황개민이 직접 만나서 교류를 하였고 그 후 신아동맹당 및 대동당에 가입한 200여 명의 인사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대다수가 당시 사회의 엘리트였고 중국과 한국 혁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다. 그중 한국 망명지사는 45명에 달한다. 『37년 유희몽』에는 황개민의 시 70여 수가 기록되어있으며 시를 통해 근대혁명가의 드넓은 흉금과 격동적인 정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황개민은 수많은 시를 창작했는데바 한국 관련 시도 적지 않다 (황지량 편선, 『황개민유고선집』, 2012년 6월).

6) 황개민, 『三十七年遊戯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무조건 참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반대하고, 인도와 연합하여 영국을 반대하며, 월남과 연합하여 프랑스를 반대하고, 아프리카 나라들과 연합하여 미국을 반대하는”<sup>7)</sup> 것이었다.

우선, 신아동맹당-대동당은 일본유학 중이던 황개민의 주도하에 한중 열혈청년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국 애국지사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립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황개민은 등석운(鄧席雲), 황림생(黃霖生), 진기우(陳其尤), 왕광백(王光伯) 등 일본유학 중인 중국 애국청년들과 신아동맹당 설립에 대해 의논하던 중, 하성연, 장덕수 등 일본유학 중인 한국청년들을 만났고 의기투합 끝에 함께 신아동맹당을 설립한 것이다. 황개민이 한국청년들에 대해 각별한 신임이 생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1916년 여름, 황개민 등 일본유학 중이던 중국 청년들은 동경에서 재일중국청년회의(留日中國青年會議)를 개최하던 중 긴급정보를 받게 된다. 한국 학생 하상연(何相衍)이 비밀리에 『한국통사(韓國痛史)』(박은식 저, 1915)를 얻은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당일 일본 경찰이 하씨 방을 수색할 때에는 왕광백이 이미 『한국통사』를 비밀리에 자신의 거처로 가져간 뒤였고, 그 후 다시 청년회 황개민의 거처에 숨겨졌다. 이 일은 그 후 황개민이 한국 청년지사들과 함께 대동당(신아동맹당) 설립을 논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황개민은 일찍 하상연과 함께 우에노관(上野館)에 입주한 적이 있지만 깊은 왕래는 없었다. 하지만 하상연은 이 일을 통해 황개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고록에서 황개민은 “상연은 진정한 지사임을 증명하였다”<sup>8)</sup>라고 그를 떠올렸다. 그 후 황개민은 하상연의 소개로 일본유학 중이던 장덕수(張德秀), 홍두표(洪門杓), 홍진의(洪震義), 김철수(金綴洙), 김양수(金良洙), 김명식(金明植), 윤현진(尹顯振) 등 진보적인 한국애국지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황개민의 회고에 따르면 한중인사들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협상 끝에 정식으로 대동당-신아동맹당을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1916년 7월 8일, 동경에 있

7) 황지량, 『황개민유고선집』, 2011, 2쪽.

8)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2쪽.

는 중화루(中華樓)에서 신아동맹당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황개민은 임시주석에 추대되어 당명과 강령을 선포했고 하상연이 추천한 장덕수는 한국청년들을 대표하여 연설을 진행했다.<sup>9)</sup> 일본에서 신아동맹당을 세운 후 얼마 되지 않아 중한 인사들은 그 본부를 상해에 설립하기로 결정지었다. 동경지부 책임자로는 조선인 장덕수가 추대되었고 중국 본부 책임자로는 요정생(姚淨生)이 추천받아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신아동맹당이 설립된 후 한중애국인사들은 적극적으로 국내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50여 명의 구성원으로 발전되었다.

신아동맹당이 설립된 후 황개민은 한국지사들을 대거 포섭하였고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한국지사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대동당의 신아(新亞)계획<sup>10)</sup>을 추진해 나아갔다. 신아계획에 대해 황개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신아계획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각 민족, (중략) 모두가 독립하여 만국이 되어 서로 협조하면서 아시아 큰 국면을 주도하고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신아계획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6년 12월, 황개민은 한국지사들과의 교류를 다지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다짐했다. 중국 측 여규지(餘揆之)와 한국 측 하상연이 황개민을 동반하여 한국으로 건너갔다. 황개민은 한국에서 각종 체험과 다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지니게 되었고 신아동맹당 구성원을 모으게 되었다. 황개민은 한국에 도착한 후 하상연의 소개로 안재홍(安在鴻), 조소앙(趙素昂), 손정도(孫正道), 신익희(申翼熙), 김명수(金明洙), 윤홍섭(尹弘燮), 박이당(朴珥堂), 이상천(李相天)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에 대해 황개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한국지사들은 신아동맹당 계획에 크게 호응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정이 넘쳐 흘렸고 일어로 담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문으로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없는 깊은 정을 나누게 되어 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가

9)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3쪽.

10)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2쪽.

없었다.”<sup>11)</sup> 황개민은 한국에서 안재홍의 소개로 조소앙을 만났다. 안재홍은 조소앙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품성과 학식이 모두 뛰어나고 백절불요의 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함께 중국에 가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황개민은 그 자리에서 조소앙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첫 만남에서 옛 친구와 같이 친해졌다. 평소에 자주 만났던 친구처럼 즐거웠다”<sup>12)</sup> 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황개민과 조소앙의 만남은 30여 년간 이어졌고 평생지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을 떠나기 전 황개민은 하상연과 조소앙에게 하루속히 중국에서 다시 재회하여 신아계획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에서 조소앙 등 애국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개민은 시를 지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는바 이는 한국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천산이 빙산을 딛고 서니/그 의기 저리 웅장한가/들에는 우마 달리니/천지가 봄을 알리누나.”<sup>13)</sup> 이 시에서는 한국독립투사들의 투쟁 정신에 대한 찬송과 독립을 이루게 될 앞날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황개민은 한국 고찰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온 후 북경에서 이대소, 고일함 등과 함께 신아계획을 상의하면서 다른 한 방면으로는 김광일(金匡一)을 통해 엄천주(嚴天柱) 등을 만났고 북경에서 다시 그의 소개로 신규식, 신헌민 등을 만나게 되었다. 조소앙이 북경에 온 후, 황개민은 신규식, 신헌민, 하상연 등과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신아계획에 대하여 일치한 인식을 달성하고 김광일을 한국에 파견하여 반일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황개민의 주도하에 신규식, 장덕수, 조소앙 등도 직접 상해, 북경, 동북 등지에서 신아계획 추진에 참여하였다. 그 후 상해로 온 황개민은 한국지사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위해 거처를 한국인 거주지역인 보강리(寶康裏)로 옮겼다고 한다.

11)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12)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13)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1917년 12월 28일 상해에서 신아동맹당 본부 설립대회가 열렸다. 중국 측 대표로 황개민, 요정생(姚淨生), 안남<sup>14)</sup> 측 대표로 황국신(黃國臣), 완해신(阮海臣) 등이 참가하였고, 한국 측 대표로는 신규식, 조소앙, 장덕수 등이 참석하였다. 조소앙이 소개한 페르시아인 이석석(李石石)도 회의에 참여하였다. 회의에서 중국 측 황개민과 한국 측 장덕수는 함께 신아동맹당 주맹(主盟)으로 추대되었다. 이같이 신아동맹당의 상해본부 설립대회에서 한국지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본부를 설립하면서 신아동맹당은 무당령제(無黨領制)를 채택하여 내부를 여덟 개 부로 나누었다. 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각 부의 성원을 간사로 불렀으며 총무부에서 각 부를 통솔하기로 했다.<sup>15)</sup> 회의에서 황개민 등 참가자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황개민이 “사해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이들/ 우리 모두 추진자 아니었던가/ 혼신의 힘을 다 하고자 기약하느니/ 나라를 평정하고 천하를 구하리라”<sup>16)</sup>라고 시를 읊자, 신규식도 이에 답시를 읊었다. “지향을 같이하는 사람들/ 풍운 타고 한자리에 모였네/ 그대는 비범한 사람이니 /만천하에 향기를 남기네.”<sup>17)</sup> 이와 같이 모진 역경 속에서도 한중지사들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돈독한 혁명적 우의를 다져갔다.

1920년 정월 30일, 상해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아동맹당을 대동당으로 개명하였다. 한중지사들은 당명을 바꿈으로써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중, 깃발과 암호를 정하였고 당의 취지를 1918년

14) 안남(安南)은 중국이 베트남을 가리켜 부른 명칭이다. 679년 중국이 하노이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명칭이다. 19세기 초 응우옌왕조(阮王朝)가 베트남을 통일하며 월남(越南)이라 개칭하였다. 1945년 9월, 베트남민주공화국(越盟)이 성립되었다.

15)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60쪽.

16) 황개민, “四海會風云, 同是樵薪者. 相期個努力, 定國平天下.”(『贈新亞同盟黨諸同志』,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60쪽.

17) 신규식, 『贈界民－華友文士黃介民』, 風雲會一堂, 同氣相求者. 明血格神人, 妙香滿天下. 김동훈·이선한 등 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이 시의 머리말에서 신규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념일(1917년 12월 28일 상해본부 설립대회가 열렸는데 회의에서 이날을 신아동맹당 제2의 기념일로 정했다)에 여러 이들과 함께 영남루에 모여 간단한 연회를 가졌다. 계민, 자재, 소인, 함인, 국신, 석석 계군이 모두 시로써 서로 뜻을 전하기에 나도 그 운을 따라 화답하여 경모의 정을 표하였다. 이 미흡한 시는 우연히 읊은 것이기에 제목을 그대로 ‘계민에게’로 정했다.”



역매원(易梅園)이 제기한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다.<sup>18)</sup> 이 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측 인원으로는 역매원(易梅園), 장몽구(張夢九), 요작빈(姚作賓), 허덕형(許德珩), 주평경(周平卿), 진중부(陳仲孚) 등이 있었고 한국 측 인원으로는 신규식(申圭植), 여운형(呂雲亨), 이동녕(李東寧), 이시영(李始榮) 등이 있었다.<sup>19)</sup> 대동당은 한중지사들이 설립한 아시아 평화와 민족독립을 지향한 진보적인 혁명단체로 그 발전과정에서 중국 지사들은 시종 한국의 독립투쟁을 지지하였고 이를 자신들의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간주하고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대동당의 중요한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 망명지사들은 시종일관 증견작용을 발휘하였다. 대동당의 설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면 한중협력은 양국이 함께 직면한 시대적 사명으로 일본 제국주의 내지는 세계강권과 전횡에 저항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중협력의 역사적 여정 속에서 황개민은 대동당의 창립자로서, 주요지도자로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는 신아계획 추진에 있어서 시종 “중한지사들의 협력을 첫걸음으로 한다”<sup>20)</sup>는 신념을 지켜나갔다.

다음으로 대동당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황개민은 직접 한국 망명지사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대동당 가입을 추진하였다. 황개민의 회고록 『37년 유희몽』을 보면 대동당-신아동맹당에 가입한 인원은 26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단양 역시 1920년대 말까지 실제로 대동당에 가입한 인원이 260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sup>21)</sup> 중국 측 지사로는 이대소, 주은래, 진독수, 장몽구, 역매원, 요작빈, 허덕형, 장국도 등 당시 중국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18)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19)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81쪽.

20)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2쪽.

21) 이단양, 『강개한 슬픈 노래 대동을 노래하네 - 중화민국시기 대동당에 대하여』, 『진양학간(晉陽學刊)』 제2기, 2019, 37쪽.

황개민의 회고록 『37년 유희몽』과 기타 중국 문헌에는 한국인의 대동당 가입 시간, 지점, 소개인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있다. 1916년 7월 신아동맹당 설립 당시, 장덕수(張德秀), 하상연(何相衍), 홍두표(洪門杓), 홍진의(洪震義), 김철수(金綴洙), 김양수(金良洙), 김명식(金明植), 윤현진(尹顯振) 등이 가입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장덕수와 하상연의 소개로 김도연(金渡演)과 동세현(董世顯)이 새로 가입하였다. 그 후 황개민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안재홍(安在鴻), 조소앙(趙素昂), 손정도(孫正道), 신익희(申翼熙), 김명수(金明洙), 윤홍섭(尹弘燮), 박이당(朴珥堂), 이상천(李相天) 등이 신아동맹당에 가입하였다. 이로 보면 1916년 말까지 신아동맹당에 참가한 한국 측 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된다.

1917년 이후 대동당에 참가한 이는 김광일(金匡一), 엄주천(嚴柱天), 신규식(申奎植), 신헌민(申獻民), 조용정(趙榕庭), 여운형(呂雲亨), 여운굉(呂運宏), 김종문(金仲文), 이동휘(李東輝), 이동녕(李東寧), 김립(金笠), 이시영(李始榮), 이승만(李承萬), 안창호(安昌浩), 박용만(朴容萬), 박은식(朴殷植), 이용(李鏞), 김웅(金雄) 등이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17년 초, 황개민은 북경에서 “옛 친구였던 김광일의 소개로 엄주천을 만났고 그를 통해 신규식과 신헌민을 소개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대동당 동지로 되었다. 또한 신규식의 소개로 이동녕과 이시영이 대동당에 가입하였다.”<sup>22)</sup> 1918년 황개민은 상해에서 장덕수의 소개로 조용정, 여운형, 김웅(김홍일), 김종문 등을 만나 대동당에 받아들였다. 아울러 미국에서 상해로 온 김종문이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를 소개하였다.<sup>23)</sup>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이후, 여운형의 소개로 박은식, 그리고 미국에서 온 여운굉이 신아동맹당에 참가했다.<sup>24)</sup> 1920년 동세현의 소개로 이용과 이동휘가 선후로 가입하였으며 그 후 이동

22)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6쪽.

23)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68~169쪽.

24) 박은식은 1920년 상해에 세워진 『구국일보』의 편집으로 초빙되었고 이 시기 황개민도 『구국일보』의 편집으로 일하고 있었다.

휘는 김립을 소개하였다. 이같이 1917년부터 1920년 12월까지 대동당에 가입한 한국지사는 총 18명이다. 황개민의 회고록은 1920년 12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안공근(安恭根), 김약산(金若山), 유동렬(柳東烈), 조완구(趙畹九), 박순(朴純, 본명 박찬익, 朴贊翊), 이청천(李青天) 등 8명의 한국지사가 대동당에 가입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35년 황개민이 김구의 환갑을 맞으며 축시를 보냈고 그 후 1937년 안공근에게 시를 보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김구와 안공근이 대동당에 가입한 시간은 대략 항일전쟁 전으로 추정된다. 그 외 김규식, 김약산, 조완구, 유동렬, 박순(박찬익), 이청천 등이 대동당에 가입한 시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황개민의 회고록을 보면 김종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 등을 소개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역시 대동당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외, 1922년 황개민은 조소앙의 소개로 김상옥을 회견했고 즉시로 대동당 일원으로 받아들였다.<sup>25)</sup> 이로써 신아동맹당 설립 초기부터 대동당 말기까지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한국지사는 총 45명으로 추정된다.

대동당의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황개민과 한국독립투사들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한중 애국지사들의 만남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연대를 필요로 하였고 대동당의 설립과 구체적인 활동은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그 가운데서 한국지사들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동당 초기 설립과 상해본부 설립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하상연, 장덕수 등은 일본에서 황개민 등과 함께 신아동맹당을 발족시켰고 신규식, 조소앙 등 한국애국지사들은 신아동맹당의 개명, 대동당의 설립 취지와 운영방침 등의 제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다음, 한국지사들은 신아계획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하면 김광일의 반일활동, 조소앙의 동북 의군부 활동,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 장덕수의 3.1운동 참여, 조소앙의 파리강화회의(Peace Conference at Paris) 참가, 여운형과 구소련의 밀사이자 대동당 일원

25) 황개민, 『김상옥 서문』, 한살임(조소앙), 『김상옥』, 삼일인서관, 1925.

인 보드 보이부와의 교류 등은 모두 대동당 활동계획에 포함되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여운형의 활발한 움직임이었다. 여운형은 구소련 밀사 보드 보이부와 황개민의 만남을 추진하였고 소련 레닌 정부에 보고를 올리고 방문일정을 조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총리 이동휘와 중화전국학생회 이사장 요작빈(姚作賓)을 구소련에 파견하는 일을 획책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사들은 대동당 활동 초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황개민이 중국으로 온 후 장덕수는 신이동맹당 일본지부 책임자 역할을 맡았고 그 후 상해본부 설립과 함께 공동 주맹으로 추대되었다. 신규식은 중국 5.4운동 직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동당의 상해 활동을 책임진 적이<sup>26)</sup> 있었다. 이와 같이 한중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키워왔고 제국주의 침탈과 종속으로부터의 민족해방 및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저항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대동당은 한중 애국지사들의 만남과 연대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중관계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

### 3. 공존과 협력: 황개민과 한국독립운동

황개민은 대동당 설립 초기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주요 방침으로 내세웠다. 그는 신아계획 추진에 있어서 “중한지사들의 협력을 첫걸음으로 한다”<sup>27)</sup>라고 할 만큼 한국독립의 절박성을 투철히 인식하고 있었다. 황개민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신이동맹당 설립 이후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한국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민족정신과 애국심에 감명을 받았고 한국독립에 대한 인식을 한층 심화하였으며 생활적 체험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26)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81~182쪽.

27)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2쪽.

한국을 방문한 황개민은 조소앙 등 한국애국지사들과 의기투합하여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황개민은 비밀리에 하상연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노모에게 인사를 드린 적 있다. 그의 두 여동생 숙정과 의순은 황개민에게 모란꽃을 수놓은 천으로 된 가로 병풍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황개민은 시 한 수를 적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천하에 사귄 친구 모두 형제라/어머님을 만나 뵈고 한 가족 되었네/고마워라 숨씨 좋고 암전한 두 자매/은근히 정을 담아 모란꽃 선물하네.”<sup>28)</sup> 아울러 하상연의 모친에게 “현모(賢母)”라는 두 자를 올려 노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문화와 사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해하게 되었다. 예하면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칠현금 소리 처량도 하니/술밭의 찬바람 컷가를 올려 주는 듯”한 감촉을 시로 표현했고, “비장한 음악”을 들으면 흡사 노래 속에 민중의 저항정신이 스며있는 듯하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밥상 위에 올린 김치를 보고 “국민성이 날카롭고 예리하여 결코 남에게 굴복하여 살 수 없으므로 독립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29)</sup>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는 훗날 한국행을 회억하면서 “실로 난세 속에서 보낸 풍이한 한해였어라”<sup>30)</sup>라고 감탄하였다.

황개민은 한국 망명지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설립과 한국 독립운동을 전폭 지지하였다. 당시 상해는 중국 근현대 정치문화의 중심이었다.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지사들이 상해에 집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 극동, 미국에 갔었던 한국지사들도 잇달아 상해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해는 한국 망명지사들의 주요활동 거점이었다. 신규식, 박은식, 이회영, 조소앙 등은 처음부터 상해에서 활동했고 이동휘, 이동녕 등은 구소련 극동에서, 김종문, 박용만 등은 미국에서 상해로 왔다. 상해에 집결해 있던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황개민의 회고록을 보면

28) 황개민, 贈何相衍之兩姊妹：“論交四海如兄弟，拜母登堂是一家。多謝賢能雙姊妹，殷勤相贈牡丹花。”『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29)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30)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상해임시정부 설립에 관하여 조소앙이 제일 먼저 화두를 꺼냈다. 이에 황개민은 “먼저 실체가 있고 그 후에 명칭이 있어야 하므로 천천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sup>31)</sup>라고 건의하였다. 그 후 조소앙은 한국 애국인사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들은 일심동체로 임시정부의 수립에 찬성하였다. 이에 황개민, 역매원, 장몽구 등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황개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 취지에 삼평주의(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 사상이 체현되었다고 보았다.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황개민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3월 1일(음력) 성립에 맞춰 삼평주의를 처음 밝혔다. 당명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sup>32)</sup>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이념적 측면에서나 인원 구성면에서나 모두 황개민 및 대동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 헌장 선포문 정강 제1조에는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sup>33)</sup>라고 쓰여져 있다. 이는 대동당 강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1918년 황개민은 역매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동당 취지를 간단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을 초안으로 발표한 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하였다. 조소앙은 대동당의 새로운 취지를 채택하기 전후, 상해에서 황개민과 자주 만나 신야계회를 직접 추진한 한국 측 주요 인사로서 대동당 취지 채택을 둘러싼 의견수렴과 최종 결정에 참여했다고 추정된다.<sup>34)</sup> 이러한 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및 정강 집필자인 조소앙이 대동당의 취지를 참고하여 임시정부 정강 제1조를 정한 계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황개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적극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지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민족독립 투쟁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예하

31) 황개민, 『三十七年遊戯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32) 황개민, 『三十七年遊戯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33) 『정강』,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국사편찬위원회, 『日本侵略韓國36年史』 (4), 397쪽.

34) 황개민, 『三十七年遊戯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면, 1919년 5월 한중지사들은 협상 후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황개민은 중국 인사 하내인(何乃人)에게 조소앙을 소개하면서 회의에 동행할 것을 부탁했고 그들에게 시문을 지어주었다. “천신만고 무릅쓰고 나를 찾아와/우리는 다정한 벗이 되었네/헤어짐에 다른 말 필요 없으니/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바른길 가야 하리.”<sup>35)</sup> 이 시에서 조소앙에 대한 깊은 우애, 그리고 뜻을 같이한 이들의 행보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소앙 등은 파리에 도착한 후 김규식, 이관용, 여운형 등과 함께 민족화평회의에 참가하였고 그 후 프랑스, 스위스, 미국, 소련 등 나라를 방문하면서 각 나라에서 열리는 중요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진보적 인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황개민은 한국독립투쟁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지사 여운형과 상의하여 대동당에 참여했던 소련 밀사 보드 보이부와의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지사들과 상의하여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연방에 보고를 올리고 소련에 사람을 파견하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sup>36)</sup> 1921년 황개민은 임시정부 내각 총리 이동휘와 중화전국학생회 이사장 요작빈을 구소련으로 파견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을 성사시키지는 못했다.<sup>37)</sup> 1922년, 조소앙은 의열지사 김상옥과 함께 상해에서 세계한인동맹 즉 무정부주의 항일투쟁단체 ‘한살임(韓薩任)’을 설립하였다. 그 강령은 대동당 설립 취지를 이어받아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인류 대동 세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당시 조소앙은 김상옥과 함께 「인류 민족과 국가 삼평지(人類民族與國家三平之旨)」, 「한살임의 정치강령 및 선언(韓薩任政綱即宣言)」에 대하여 토론했다.<sup>38)</sup> 그 후 김상옥은 한국에 가서 ‘한살임’ 구성원

35) 황개민, 『三十七年遊戩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36) 황개민, 『三十七年遊戩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81~182쪽.

37) 황개민, 『庚寅冬雪登樓感賦七古自傳』, 黃志良選編, 『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173쪽.

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했고 그 와중에 서울 종로 일본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성 인권을 늘라게 했다. 김상옥을 체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백여 명의 일본 경찰을 동원하였다. 십여 일 동안 홀로 간고한 투쟁을 이어오던 김상옥은 그 후 여러 명의 경찰을 사살하고 장렬히 희생되었다. 1923년 조소앙은 『김상옥전』을 집필하였고 1925년에 이르러 1000부를 출판하였다. 황개민은 표지에 붓으로 글을 써주었고 서문과 시를 통해 김상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자금을 마련하여 5000부를 더욱 발행함으로써 『김상옥전』이 중국 내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였다.<sup>39)</sup> 그 후 1932년 윤봉길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로부터 항주로 몸을 숨겼다. 지극히 어려운 항주 피난 생활 속에서도 조소앙은 잡지 『진광(震光)』을 창간하였으며 저술 활동을 견지하였다. 황개민은 조소앙의 저술 활동을 힘껏 도와주었는바 조소앙이 쓴 81여 명의 의열지사 전기 『유방집(遺芳集)』을 출판할 때에도 대동협회의 명의로 간행을 지지하였다. 황개민은 이 책에 직접 서문과 발문을 써주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 역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도움과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sup>40)</sup>

황개민의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는 항일전쟁 시기에도 변함없었다. 그는 중국 5.4운동 학생 지도자이자 대동당 일원인 혁명선구자 허덕형(許德珩)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지사들은 상해에 한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내에서 피를 흘리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 윤봉길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을 죽인 거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 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항일전쟁 및 동아시아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는 일입니다.”<sup>41)</sup> 또한 허덕형의 저서 『중일 관계 및 그 현황』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치

38) 조소앙, 『김상옥전』, 삼일인서관, 1925.

39) 한살임(조소앙), 『김상옥』, 삼일인서관, 1925.

40) 조소앙, 『유방집』, 대동협회, 1933.

41) 황개민, “韓國之士曆年在滬組織大韓帝國臨時政府, 併不斷向國內作種種犧牲之獨立運動, 及其志士尹奉吉刺斃白川大將於虹口公園, 較安重根之刺伊藤足相伯仲, 均於吾華抗戰併東亞前途之演變有著密切關係.” 『허덕형에게 보내는 편지』(1939.2.90,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86쪽).



럼 황개민은 한국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혁명 내지는 아시아의 평화와 연관 지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황개민은 “계림파 육군자(桂林派六君子)”<sup>42)</sup>로 명망 높은 호납생(胡納生)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한국 벗들과 왕래할 때 항상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류 평등 등 대동사상에 대해 호소합니다. 가령 부속국으로 보거나 혹은 일시 이용하려는 외교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해일 것입니다. 만약 사상을 중히 여기고 서로 도와준다면 그 폐단이 적을 것입니다. 항일운동을 두고 말할 때 우리나라는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를 우선 전략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역시 한국인들이 바라는 예의적인 태도입니다.”<sup>43)</sup> 이 글에서 보여지다시피 황개민은 한국을 부속국으로 보거나 외교대상으로만 보는 그릇된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독립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황개민의 한국인식은 종래의 자국중심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을 주장했던 그의 근대 민주주의 사상적 발로임을 알 수 있다.

황개민은 1934년 국민정부 중앙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37년 사법원(司法院) 비서로 임명되면서 국민정부와 함께 중경으로 거처를 옮기었다. 중경에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이청천, 조소앙 등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군인 한국광복군의 창설에 기뻐했으며 그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황개민은 일찍 대동당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장봉구(張鳳九)에게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을 돕기를 청했다. 그가 장봉구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42) 호납생, 강서남창인, 1926년 『관철일보』 사장 역임, 1934년 이종인, 백승의 초청을 받아 광서로 가서 이종인, 백승의 책사 격인 “계림파 육군자”가 된 것이다.

43) 황개민, “吾於韓友往來, 意宜推誠相見, 以人類平等之大同主義相號召為是. 若仍以附庸國視之, 或僅以外交手腕對待, 徒欲利用一時, 實為錯誤. 如果重主義而行互助, 則流弊較少. 以抗日論, 吾國自當積極助韓國獨立為第一戰略, 亦實韓人所願負弩前趨者.” 『호납생에게 보내는 편지』,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87쪽.

“한국의 광복 운동과 항일전쟁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들으니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북과 동북에 있는 우리 군사구역 군정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광복군의 활동에 일체 편의를 도모해준다면 일이 진척됨에 있어서 큰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반적인 국면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일전쟁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운 뒤 하늘을 보듯 배후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여 고려해준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sup>44)</sup> 이어 황개민은 편지에서 서북, 동북 군정 장관에게 김구, 이청천, 조소앙 등을 소개하여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도록 청을 했다. 황개민은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중국 항일전쟁 참여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냈고 이에 응하여 중국당국에서 한국광복군의 항일운동을 몰심양면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한국광복군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동아시아 전반적인 국면을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황개민이 김구, 김규식, 이청천 등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도 그의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1945년 11월 2일, 중경에서 황개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국 및 세계의 운명과 앞날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개민은 그 자리에서 「중경에서 김구 등 벗들을 바래면서(渝都贈別金九諸友)」<sup>45)</sup>라는 글을 쓰고 김구, 이시영, 유동열, 조소앙, 신익희, 박순, 조완구, 김규식, 이청천 등 임시정부 주요 인사 이훈 명의 사인을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청천이 급히 상해로 가고 김규식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머지 일곱 명만 이 글에 사인하였다. 그들은 이 글을 한중지사들의 협력과 화합,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표로 간주하

44) 황개민, 「備聞韓國復國運動並助抗戰一切情況, 殊爲興奮」, “關於西北, 東北我戰區軍政長官對於光復軍之進行事宜, 無條件予與一切便利, 方收事半功倍之效”, “事關東亞大局之轉移要著, 與我國抗戰中尤有重大與密切關係, 幸瀆神霄察, 緊切爲謀是感”. 「致張鳳九的信」,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년 8월, 189~190쪽.

45) 황개민, 「渝都贈別金九諸友」,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년 8월, 196쪽.

였다. 이 글에서 황개민은 대동당의 취지와 중한 애국인사들의 돈독한 관계를 회고하면서 한국이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나타냈다. “대동당 설립 30년 동안, 변함없이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을 주장해왔고 한국독립, 필리핀독립, 안남(베트남)독립, 인도독립을 위해 계획과 방침을 세워왔다. 한국독립 후 여러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꼭 잘 해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동인들도 아주 기뻐하고 있다”, “동지들이 바야흐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때, 우리 동인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아울러 황개민은 윗글에서 한국지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희망 사항을 제기하였다.

“희망컨대 한국에 돌아간 후, 진정성을 담아 일을 추진하고 각 당파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공식 정부를 수립하여 책임을 다하고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길 바란다. 희망컨대 한국에 돌아간 후, 민중에게 대동사상을 널리 알리고 정책을 제정하여 보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희망컨대 한국에 돌아간 후, 새로운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평화사회의 구현, 신앙 자유 보장,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 건립을 우선순위에 놓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길 바란다.”<sup>46)</sup> 이와 같은 희망 사항을 살펴보면, 황개민은 대동당의 설립 취지와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이념과 지향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념과 지향은 황개민의 사고의 틀에서 아나키즘 요소가 점차 열어지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열망이 날로 깊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긴 세월 동안 황개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운동에 사심 없는 도움을 주었고 이는 한중지식인 사회의 유대관계 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중지사들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았고 공존과 공생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항일투쟁의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을 잡았고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함께 싸워나갔다. 이는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6)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년 8월, 196~197쪽.

#### 4. 믿음과 격려 : 황개민의 시문(詩文)으로 보는 한중 애국지사의 우애

황개민은 근 30여 년간 한국 및 한국인의 운명을 주시해왔고 그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깊은 우애를 쌓아왔다. 황개민은 애국지사로 알려졌지만 평생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문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수많은 회고록, 정치평론, 시문 그리고 서신을 남겨놓았다. 그중 한국 관련 시는 10여수에 달한다. 이를 송별시, 회인시(懷人詩), 추모시, 축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송별을 앞두고 쓴 시로는 「한국의 여러 동지에게」(1916), 「하상연의 두 자매에게」(1916), 「조소앙에게」(1919), 「장덕수에게」(1919), 「하상연에게」(1918), 「신아대동맹 여러 동지에게」(1917) 등이 있다. 회인시로는 「하상연에게」(1918), 「하신랑-안공근에게」(1918), 「신예관의 산려도에 제사를 적노라」(1929) 등이 있다. 추모의 감정을 표현한 시로는 「김광일 지사의 죽음을 통곡하며」(1920) 등이 있고 축시로는 「진단 순간 간행을 축하하여」, 「백범 김구의 환갑을 축하하여」(1935), 「하신랑-하상연을 그리며」(1944) 등이 있다. 산문으로 「박은식 제문」(1926), 「박은식 전찬」(1926), 「김상옥전·서문」(1925), 「유방집·서문」(1933) 등이 있다. 황개민의 관련 시문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와 성원, 투철한 혁명적 이념과 드넓은 흥금, 그리고 한중 애국지사들의 우애와 따뜻한 정감 세계도 엿볼 수 있다.

우선, 황개민은 시문을 통하여 중국에 망명했던 한국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그들의 투쟁 정신과 민족적 기개를 높이 평가하였다. 황개민은 한국지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과 동정을 보냈으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했다.

대동당 본부가 상해에 설립된 후, 중국에 망명했던 신규식, 조소앙, 박은식 등은 모두 대동당의 주역으로 활동하였고 황개민과 여러 면에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예하면 황개민은 신규식이 창간한 『진단주보(震壇週報)』에 「진단 순간 간행을 축하하여(祝震壇旬刊)」<sup>47)</sup>라는 시 한 수를 지어 간행 취지와 사

회적 영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옳고 그름 분 명치 않으니/진리가 날로 흐트러지고/외환(外患)과 내우(內憂)로/한숨이 끊 기질 않네/그대는 뉘신가/붓대 휘둘러 순간(旬刊)을 발행하니/그 이름 ‘진 단’(震壇)이라/외침으로 사람 마음 일깨워주고/고함으로 나라 영혼 불러일으 키니/치국과 평천하를 논함이/천하의 번영과 화평을 일관되게 하더라/가르 침에는 방도가 있고/평판함에는 공명이 있네/종이 한 장 바람처럼 하늘을 나 니/그 이름 찬란하고 명망이 높네.”

그 당시 『진단순간(震壇旬刊)』은 국내외에서 널리 발행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창간자인 신규식의 확고한 이념과 끊임없는 노력이 큰 작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애국지사들의 정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의 전폭적인 지지도 일정 부분 촉진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중산, 황개민, 역매원, 이대소, 진독수 등 중국혁명의 선구자들도 잡지간행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황개민은 1928년 「신예관의 산려도에 제사를 적노라(題申睨觀汕廬圖)」<sup>47)</sup>를 발표하였다. 그는 시의 서두에 신규식을 북경에서 처음 만났던 시절부터 그 후 상해에서 재회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적었다. “(신규식은) 주저 없이 나에게 『산려도(汕廬圖)』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나라가 당하고 있는 변고, 스승과 벗들의 죽음 그리고 부자와 혈육의 생이별 등을 절절히 읊은 몇십 수의 시가 적혀있었다. 시는 피눈물로 얼룩져있었고 시풍은 흡사 사고우(謝 臯羽)와 황이주(黃梨洲)의 시의 풍격과 유사했다. 이에 그들의 뜻을 헤아리

47) 황개민, 「祝震壇旬刊」, 황지량 선편, 『황개민유고선집』, 2011년 11월, “是非不明, 真理日亂. 外患內憂, 足爲三歎. 伊何人歟, 揮灑柔翰. 創辦旬刊, 厥名震壇. 振聾啟聵, 國魂呼喚. 日治日平, 大同一貫. 指導有方, 公明評判. 一紙風行, 聲華彪煥.”

48) 황개민, 「題申睨觀汕廬圖」, 『先導月刊』第1卷 第2號, 1928년 6월, 10쪽. “申子睨觀, 名奎植, 韓中患難友也. 自日並韓後, 便出亡中土, 流離顛沛, 以恢復爲職志, 善漢文, 並華語. 曩歲與予遇於燕市, 慨然訂交, 大有同病相憐之威, 而後相與吐肝膈, 策危疑者累矣. 迨新韓成立民國, 設臨時政府於上海, 睨觀迄任國務總理, 差足爲故人一雪幽憤. 頃出汕廬圖示見, 內設數十首, 曆詠邦家變故, 並師友死亡, 與夫父子骨肉之生離死別, 生生血淚, 有類謝臯羽黃梨洲之風概. 愛展其意而重賦數言, 以志慨雲.” “人世由來重風節, 讀罷汕廬心掩咽. 遺民孤子良足哀, 山河破碎鵲啼血. 等是天涯踏冰雪, 檀黃互助連環結. 相從患難冬復冬, 梅花落罷橫雲裂. 天明門轉幽鄉絕, 長虹貫日丹霄烈. 尤期四海歌升平, 水雲魚鳥鹹相悅.”

고자 몇 구절 (보태어) 다시 읊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글에서 보여주다시피 황개민은 신규식의 『산려도(汕廬圖)』 시문을 읽고 그에 답하는 의미로 아래의 시를 지은 것이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 세상은 자고로 곳곳한 절개를 중히 여겨  
『산려도』 읽고 나니 목이 메어오네  
남겨진 이들이 참으로 애달파  
산하가 부서지고 두견이 꾀 토하며 우네  
천애지각 어디서나 빙설을 덮고 사니  
단군 후에 황제 자손 손 잡고 같이 가네  
환난을 같이할 제 겨울 가고 겨울 오니  
매화꽃 지고 나서 비긴 구름 찢어지네  
북두 돌아 날 밝으면 어두운 세상 끝나고  
해를 켜 무지개에 붉은 노을 불타리라  
더더욱 바라노라 천하에 승평가 올리고  
구름 비긴 물 위에 물고기 노닐고 새 지저귀는 그 날을

시에서는 우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의 현실을 비통하게 여겨 “남겨진 이들이 참으로 애달파/산하가 부서지고 두견이 꾀 토하며 우네”라고 처연한 감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중한지사들이 의기투합하여 투쟁의 길에 나섬을 은유적으로 “천애지각 어디서나 빙설을 덮고 사니/단군 후에 황제 자손 손 잡고 같이 가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독립의 그 날이 기필코 오리라 확신하였다. “더더욱 바라노라 천하에 승평가 올리고/구름 비긴 물 위에 물고기 노닐고 새 지저귀는 그 날을.” 시에서는 신규식의 투쟁 정신과 혁명적 기개를 높이 평하고 한중 애국지사들의 협력과 우애를 칭송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었다.

황개민은 하상연을 통하여 한국 상황을 소상히 살필 수 있었고 한국에 가서 뜻이 같은 한국지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상연은 한국 독립투쟁에 도움

이 되기 위해, 중국에 온 후 신아계획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북경에서 군사 학교를 다녔다. 1918년 그는 상해에 와서 병을 치료한 한편 신아계획 추진에 나섰다. 황개민은 상해에서 하상연을 다시 만났을 때, 지난 일을 추억하며 시 한 수를 지어 선물했다.<sup>49)</sup> 이 시는 리듬감 넘치는 격조에 심금을 울리는 정열을 잘 담아내고 있다.

첫 구절을 보면 “한국에 알려진 두 인걸/안중근과 나철이라네”라고 표현하면서 안중근과 나철의 불요불굴의 민족정신을 찬양하였다. 중간 부분에서 “단군과 황제는 형제와 같아/팔배나무 꽃이 지니 다 같이 목이 메네”라는 표현은 두 나라의 오래된 우의를 강조하면서 현재 함께 직면한 비참한 상황과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의 에필로그는 다음과 같다. “보시라/세 호 남은 초나라는 진나라를 멸한다고/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친다네/안중근과 나철의 혼백 오늘도 남아있어/갔던 길 달랐어도 모두 함께 빛나네.” 이는 안중근과 나철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일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들의 굳은 의지와 기개를 칭송한 부분이다.

다음, 황개민은 시를 통해 한국애국지사들에 대한 우애를 진솔히 보여주고 있다. 홍두표, 하상연, 김광일 등 한국지사들의 타계 소식을 전해 듣고 황개민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시를 지어 슬픔을 달래면서 그들을 추모하였다.

신아동맹당 초기 구성원인 홍두표가 지병으로 귀국하여 휴양하였으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황개민은 비통한 심정을 추스르면서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두표는 메이저대학 학생이었다. 나이는 서른 살 좌우이고 성품은 진실했으며 가끔 조금한 성미를 보일 때도 있었다. 서로 안면을 익힌 후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매번 홀로 나를 찾아와 웅팽하게 나아갈 것을 독촉하기 바빴다.”<sup>50)</sup> 황개민은 홍두표의 질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일에 너무 지친 탓인 것 같

49) 이 시는 조소앙의 『김상옥전』(三一印書館, 1925)에 황개민이 써준 서문과 함께 실렸다.

50)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3쪽.

다. 내가 알기로 그의 친구들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는 조선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나에게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 휴양하러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나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대의 책임이 더 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비통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고 붓을 들어 두 마디를 적어보았다. ‘총망히 떠나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은 더없이 아쉽고 슬프구나’. 악수하고 이별을 고하려는데 그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왔다. ‘지기로 믿어준 그 은혜, 죽어도 길이 남아있으리라’. 고향에서 그는 병으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 매번 그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sup>51)</sup> 윗글에서 보여지다시피 황개민은 홍두표를 지기로 삼고 깊은 정을 나누었다. 홍두표 역시 황개민을 각별히 존중하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또 다른 한국지사 김광일은 대동당 일원이었고 중견역량을 과시한 인물이었다. 1919년, 상해에 있던 황개민은 김광일이 북경에서 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황개민은 다음과 같이 그때를 회고하고 있다. “마음이 몹시 무겁다. 광일은 안중근 다음으로 걸출한 지사였다. 불행히도 한을 남기고 돌아갔으니 특별히 그를 위해 시를 지어 곡하노라.”<sup>52)</sup> 즉 이 시는 영웅을 기리는 애도사였고 제국주의 패권에 반대하는 투쟁의 노래이기도 했다.

시의 첫 구절을 보면, 김광일의 타계 소식을 들은 후의 비통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글자마다 슬픔과 통한, 그리고 애잔한 그리움이 묻어나고 있다. “난데없는 찬 구름 첩첩이 몰려와/김 군이 죽은 소식, 황 군<sup>53)</sup>에게 전해 들네/세상은 넓고 친구는 많다지만/이런 지기 몇이나 되더냐/그제 날 친인의 장례에서 처음 만나/아침과 교만 없이 서로를 공경했다네.” 시에서는 비보를 받은 후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소박한 시어로 담담히 표현해내고 있다. 이어 민족독립과 조국 광복을 위해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51)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3쪽.

52) 황개민, “心緒殊恶劣. 重念匡一以安重根第二志者. 不幸遗恨以死, 特为一诗一哭之云.”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년 8월, 171~172쪽.

53) 여기서 황군은 대동당 일원인 안남 지사 황국신을 가리킨다.



투쟁을 이어왔던 고인의 강인한 의지를 칭송한 부분이다. “효와 충을 갖추고 늙은 부친 이별하니/산 넘어 물 건너 갈 길이 망망하네.” 이는 고향을 떠나 이국 타향에서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에 뛰어들고 고인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 찬미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고인과 함께한 준엄했던 투쟁의 나날을 추억하기도 했다. “은근히 나에게 하는 말/오래된 한 풀고 싶어 한시가 급하다네/추운 밤 급급히 웅 군과 주 군 찾아보니/영웅을 중히 여겨 격려할 길 도모하네.” 이는 북경에서 함께했던 시련에 찬 나날을 되새기며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정경을 여실히 그려낸 부분이다.

시의 에필로그를 보면, 지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기약한 날 많이 남아 잠시 쉬는데/영웅의 죽음을 어찌 예상했으랴/느닷없이 피 토하고 별세했다 전하니/영별에 목이 메어 하늘 향해 따져 묻네.” 이는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맞이하지 못한 채로 눈을 감은 김광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애절하게 그려낸 부분이다.

이 시는 모두 44마디로 되어있으며 서사와 서정이 적절히 조화된 고체시(古體詩)이다. 이 시를 통해 한중 애국지사들의 밀접한 관계와 도타운 우애를 여실히 보아낼 수 있다. 항일투쟁과 민족해방이라는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험난한 공존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했던 한중 애국지사들의 만남의 장을 담담한 시어로 진실하게 그려낸 시문이라 여겨진다.

그 외에도 1918년 황개민은 하상연과 헤어진 후, 이십여 년간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상연의 타계 소식을 들은 황개민은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며 사(詞) 형식의 시 「賀新郎」<sup>54)</sup>를 지었다. 1944년 12월 4일, 황개민은 하상연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표현한 이 시를 조소앙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후일 승리를 맞이하는 날이 오면 저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여 이 글을 바위에 새겨 두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회고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시의 서두에는 “갑신년 11월(음력)에 서울 명월루를 그리며 하상연을 애도합니다. 조소앙에

54) 황개민, 『致趙素昂書』, 『근대사자료』 124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1년 8월, 191~192쪽.

게 서신을 보내면서 아울러 대한민국의 김구, 김규식, 이청천, 유동월, 신익희, 이시영, 조원구, 박순, 김약산 등 오랜 벗들에게 보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천애지각 떠도는 망명객 신세  
 큰 칼 휘두르던 그 옛날 돌아보니  
 비바람 몰아칠 때 새벽닭이 울었네.  
 강개할사 하량이 큰 계획 펼치니  
 정녕 원대한 계획 얻었으리라.  
 뇌기칩은 그 누구더냐, 현명한 인재 어디로 갔뇨?  
 눈길 따라 넘나든 관산 천만리  
 용담에 이르러 자당님을 배알했네.  
 의기가 투합하여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삼누나.

누각에 올라 취하던 일  
 눈앞에 새롭네.  
 아울러 기뻐하던 그대 모습 너무나 멋졌었네.  
 춤사위는 아름다워 난과 봉이 나는 듯  
 미인의 가야금 소리 또한 뜻이 통하니  
 ‘고산유수’ 한 곡 함께 뜯었네.<sup>55)</sup>  
 세월이 흘러 어언 30년 어렵듯이 옛이야기 되었으니  
 슬프게 먼저 떠난 지기는 그 얼마였더냐.  
 흥망을 짚어보니 성패의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55) 높은 산악 세찬 물결(流水高山) : 백이는 거문고를 훌륭하게 다루었고 종자기는 악곡을 기막히게 가려들었다. 백이가 높은 산을 염두에 두고 거문고를 타니 종자기는 “훌륭하구나, 이어한 태산을 방불케 하네!”라고 말하였고 세찬 물결을 염두에 두고 거문고를 타니 종자기는 “훌륭하구나, 망망한 장강 황하와 신통하구나!”라고 평하였다. 백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거문고를 타도 종자기는 신기하게 제대로 알아맞혔다. 종자기가 죽은 뒤로 백이는 세상에 더는 지음(知音)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문고를 부숴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기대하노라

비구름 헤쳐 나아갈 그 날을.

이 시를 통해 세상을 떠난 한국지사들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면서 하상연의 집을 방문했던 일, 처음 한국에서 뜻을 함께 모았던 일 등 30여 년 전의 추억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민족해방의 그 날을 염원하였다. 황개민은 이처럼 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서문<sup>56)</sup>과 제문, 인물전기도 집필하여 한국지사들의 독립투쟁과 민족정신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들과의 우애도 남김없이 표현하였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이 서거했다. 비보를 받은 황개민은 혁명적 시기를 잃은 비통한 심정으로 박은식을 위해 추모글을 보냈다.<sup>57)</sup> 1926년, 황개민은 「박은식 제문(朴殷植祭文)」,<sup>58)</sup> 「박은식 전찬(朴殷植傳贊)」,<sup>59)</sup>을 집필하여 박은식의 서거를 추모함과 동시에 그의 학술적 역량, 혁명 의지와 민족정신을 칭송하였다. 황개민은 「박은식 제문」에서 박은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현명하고 호방한 지도자(領袖賢豪)”이자 “한국의 스승이며 민중의 철인이다(韓國自師, 人羣之哲).” 또한 「박은식 전찬」에서 황개민은 전기적 인물형상을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냈다. 그는 박은식의 한국에서의 정치적 활동,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주도과 저술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어지러웠던 한 세대를 풍미한 정치가이자 사상가, 독립운동가, 언론인, 학자였던 박은식의 생애 및 활동 사항, 사회적 공헌을 낱낱이 소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그와의 만남을 회억하며 인품과 풍채 등

56) 황개민은 조소앙의 전기 『김상옥』(1925), 『유방집』(1933)의 출판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자(題字), 서문, 발문을 써서 저서의 가치와 한국 의열지사들의 투쟁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논문 「조소앙의 『유방집』 및 중국 관련에 대한 고찰」(『동강학간』 2020년 제3기)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57) 대동학회 설립 10주년 1926년 11월 4일, 대동대학 대표 蔡北崙, 黃宗漢, 周秉光, 劉伯英, 黃介民 등은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박은식 영전에 추모글을 보내어 명복을 빌었다. 황각(황개민), 「박은식 제문」을 참조, 『五九』 제11기, 125쪽.

58) 황각(황개민), 「박은식 제문」, 『五九』 제11기, 125쪽.

59) 황각(황개민), 「박은식 전찬」, 『五九』 제12기, 1926, 86~89쪽. 『大同學報』 1929년, 제1기, 65~67쪽.

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박은식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와 『황성신문(皇城新聞)』 등 다수의 신문과 잡지에 논설을 발표하여 애국계몽사상가로서 자리매김했다. 그의 계몽사상은 의병운동과 연계지를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깊다. 황개민은 박은식의 애국 계몽운동 및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논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예리한 붓끝과 열렬한 논조로 일제가 강요한 조약의 진실과 시국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격양된 목소리로 국내외에 나라 민심을 널리 알렸다. 공경대부로부터 행상인과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의분에 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셀 수 없이 많았다.” 황개민은 박은식이 중국에서 펼친 정치 활동과 저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박은식은 중국으로 망명한 뒤 『안중근전』, 『한국통사』, 『한국독립투쟁지혈사』 등 역사 저술을 출간하여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시일보』 주필, 『구국일보』 편집, 『사민보』 주필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문필활동을 전개하였다. 황개민은 박은식의 사회운동과 문필 활동에 대해 “정치 없이 떠돌며 갖은 고난을 겪었고 좌절도 많았다. 하지만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태도가 성실하며 유학자의 기질이 엿보였다”라고 평하였다.

황개민은 한때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박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로 마무리를 지었다. “나는 친구 여운형의 소개로 백암선생(박은식의 호)을 만나게 되었고 동지로 인정하였다. 인류 평등과 세계대동을 최종적인 주요 취지로 삼았다. 수년간 우리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오늘 불행히도 (백암선생은) 갑작스레 저세상으로 떠났다. 옛정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윗글에서 보여지다시피 황개민은 그를 대동당의 혁명 지기로 간주하고 진솔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담아 추모하였다. 전반 글에서 박은식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 찬송과 추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 5. 나오며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교류와 협력, 지지와 우애는 한중 근현대교류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시사하고 있다. 우선, 밀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일본이 주장한 아시아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오키쿠라 텐신(岡倉天心)이 『동양(東洋)의 이상(理想)』을 통해 제일 처음 주장한 아시아주의는 종교 및 예술적인 측면에서 서구문명의 위협에 대응하여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불행을 겪었다. 황개민의 주도하에 한중지사들은 대동당(신아동맹당)을 설립하여 일제의 아시아주의에 맞서 신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민족 평등, 인류 대동의 목표를 세우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독립과 해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물론 대동당 초창기의 정치이념은 아나키즘 요소가 짙었다. 이는 당시 한중지사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사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한중인사들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중지사들의 끈끈한 연대와 협력은 한국독립투쟁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지사들은 신해혁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서광(曙光)’<sup>60)</sup>을 발견했다. 그들은 신해혁명당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독립투쟁 및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구축을 촉진했다. 1910년대 초반, 한국애국지사 신규식, 박은식 등은 중국의 대계도(戴季陶), 진기미(陳其美) 등과 함께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sup>61)</sup>를 조직하여 한중협력과 동아시아

60) 金俊燁 編, 『韓中外交史話』, 『石麟閔弼浩傳』, 나남출판, 1995.

61) 『진영사 기년』이란 책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남아있다. “진기미의 조카이며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을 지낸 진과부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숙부(진기미)는 조선의 모모 등과 함께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였고 신아동제사라고 불렀다. 이는 조선독립을 위한 항일투쟁단체였다. 숙부는 이 결사대의 감독을 맡고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하였다.’ 陳其美的侄子, 后来担任中国国民党组织部长的陈果夫曾回忆称: “叔与朝鲜人某某等组织秘密结社, 名新亚同济社, 专为朝鲜独立, 叔为此结社之监督, 在物质, 精神上提供诸多援助. (莫永明, 范然 陈英士纪念, 南京大学出版社, 1991, 202页). 민필호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신규식)선생은 한국과 중국의 혁명지사들을 서로 연결하고 양국 민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아동제사를 조직할 것을 발기하였고 거기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중국국민당 엘리트들이었다. 즉 당시 사회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분으로 宋漁

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했다. 중한지사들에 의해 설립된 대동당(신이동맹당)은 신이동제사의 중한 협력관계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신이동제사와 밀접한 내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동당은 상해에 본부를 세운 후 중국에 망명한 한국애국지사들을 널리 포섭함으로써 한중지사들을 위한 조화롭고 단결된 만남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 망명했던 한국지사 신규식, 김구, 이동휘, 이동녕, 이동휘, 여운형, 박은식, 조소앙 등은 모두 대동당의 일원이었다. 상해임시정부 수립 이후 이들은 서로 이념적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동당의 취지하에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운동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 외에도 한중인사들은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의열투쟁(義烈鬪爭)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어진 의열투쟁은 한국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항일투쟁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비록 암살, 파괴, 투탄 등 급진적인 무력 투쟁을 펼쳤지만 이들의 거사는 일제에 심중한 타격을 가했고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의거, 윤봉길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 등은 대동당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고 실제 거사의 조직자는 조소앙과 김구였다. 또한 대동당은 한국 의열투쟁에 관한 저서의 출판과 발행을 전폭 지지하였고 중국에서의 전파와 보급을 확대하였다. 조소앙의 『김상옥전(金相玉傳)』과 『유방집(遺芳集)』, 김광의 『윤봉길전(尹奉吉傳)』 등의 출판 및 발행은 모두 대동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교류와 협력에도 일정한 역사적 제한성이 있었다. 설립 취지와 이념, 즉 아나키즘적 성향 및 통일된 지도체제의 결핍성으로 말미암아 대동당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만남과 연대, 공존과 협력, 믿음과 격려 등 밀접한 관계는 근현대 한중 투쟁사와 교류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기

夫, 陳英士, 戴季陶, 廖仲愷, 鄒魯, 徐歎, 張傳泉, 屈映光, 吳鐵城, 殷汝驪, 胡霖, 柏文蔚, 呂天民, 唐紹儀, 唐露園, 黃介民, 楊春時, 陳果夫, 張靜江 등이 참가했다. 『예관 신규식 선생 전기』 석원화, 김준엽 공편, 『신규식·민필호와 한중관계』, 나남출판, 2003, 266~267쪽.

었다. 대동당, 나아가서 황개민과 한국 망명지사들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중한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료의 발굴과 공유, 논의와 토론은 중요한 연구과제일수 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관련 역사자료를 더욱 발굴하고 고증해야 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하면, 박은식, 신규식, 김구 등 한국 애국지사들과 대동당의 관계,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 사상과 대동당 이념의 관계, 조소앙의 저술과 중국 문인의 교류, 한중 지식인의 근현대 투쟁사 및 교류사에 관한 집필 등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동아시아적 시각과 세계적인 사유를 동시에 갖추고 다양한 접근과 통합적 방법론을 모색하여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풀어본다면 근현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 黄介民 한국 관련 詩詞<sup>62)</sup>

### 1. 贈韓國諸同志\*(1916)

千山踏冰雪，意氣何雄哉。  
原爲牛馬走，天地報春來。<sup>63)</sup>

한국 여러 동지에게

천산이 빙산을 딛고 서니  
그 의기 저리 웅장한가.

62) 황개민의 한국 관련 시는 그의 회고록 및 서신, 유고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회고록에 나타난 시는 대부분 제목을 달지 않았다. \*를 표시한 시의 제목은 필자가 달았음을 특히 밝혀둔다.

63) 황개민, 『三十七年遊藝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들에는 우마 달리니  
천지가 봄을 알리누나.

2. 贈何相衍之兩妹妹\*(1916)

論交四海如兄弟，拜母登堂是一家。  
多謝賢能雙妹妹，殷勤相贈牡丹花。<sup>64)</sup>

하상연의 두 자매에게

천하에 사귀 친구 모두 형제라  
어머님을 만나 뵙고 한 가족 되었네.  
고마워라 솜씨 좋고 얹전한 두 자매  
은근히 정을 담아 모란꽃 선물하네.

3. 離開平壤有感(1916)

我載千秋恨，來拜箕子陵。  
風雪滿天地，彤雲千萬層。  
宵征寒徹骨，魂夢失依憑。  
懷想一何極，回腸如結繩。<sup>65)</sup>

평양을 떠나는 감회

친추의 한을 품고

64) 황개민, 『三十七年遊戩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65) 황개민, 『三十七年遊戩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55쪽.



기자능을 배알하니  
천지 간에 눈보라 가득 차고  
하늘가엔 먹구름 겹겹하네.  
밤길에는 추위가 뼈를 에이고  
혼백은 꿈속에서 오갈 데 없네.  
그리움은 어이하여 끝이 없느냐  
저미는 듯 애간장 풀 길이 없네.

#### 4. 贈新亞同盟黨諸同志\*(1917. 12)

四海會風雲，同是椎秦者。  
相期各努力，定國平天下。<sup>66)</sup>

신이동맹당 여러 동지에게

사해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이들  
우리 모두 추진자 아니었던가.  
혼신을 다하고자 기약하느니  
나라를 평정하고 천하를 구하리라.

#### 5. 贈何相衍\*(1918)

聞到韓廣兩人傑，安公重根羅公喆。  
或爲慷慨斃元凶，或爲從容自引決。  
從容慷慨無軒輊，機會不同同殉節。  
悠悠生死奚足論，遺恨空存鐵與血。

66)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60쪽.

爲奴爲婢爲牛馬，山河破碎金甌缺。  
 檀君黃帝等兄弟，棠棣花殘互幽咽。  
 我從東征返征轡，曾駐京城踏冰雪。  
 悲歌一曲明月樓，相憐同病河梁別。  
 驅車惘惘出安東，滿目滄痍倍淒切。  
 人間瘡毒有如此，劍氣縱橫肝膽裂。  
 君不見，楚雖三戶必亡秦，同仇更締同心結。  
 安羅魂魄今猶在，分道揚鑣競芳烈。<sup>67)</sup>

하상연에게

한국에 알려진 두 인걸,  
 안중근과 나철이라네.  
 한 사람은 강개하게 원흉을 격살했고  
 한 사람은 태연히 제 목숨 끊었다네.  
 강개하고 태연함에 어찌 우열 가릴손가  
 때는 서로 달랐어도 다 같은 순절이라네.  
 수많은 생과 시를 따져선 무엇하리  
 원한만 헛되이 쇠와 피에 남았네.  
 백성들은 노비 되고 마소 되고  
 산하는 부서지고 국토는 깨어졌네.  
 단군과 황제는 형제와 같아  
 팔배나무 꽃이 지니 다 같이 목이 메네.  
 동으로 떠났다가 고삐 돌린 나는  
 경성에 머물며 빙설을 밟았네.  
 명월루에 올라 애달픈 노래 부르며

---

67) 황개민, 『三十七年遊戯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69쪽.

같은 이픔 서로 다독이며 작별을 하네.  
 망연히 수레 몰아 안동을 나서니  
 비참한 모습에 마음 갑절 처절쿠나.  
 세상에 이런 폐해 어디 있단 말인가  
 검기가 요동치며 간담이 찢어지네.  
 보시라,  
 세 호 남은 초나라는 진나라를 멸한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친다네.  
 안중근과 나철의 혼백 오늘도 남아있어  
 갔던 길 달랐어도 모두 함께 빛나네.

#### 6. 贈趙素昂\*(1919)

千辛萬苦來,  
 與我結同好.  
 臨岐無別語,  
 努力犧牲道.<sup>68)</sup>

조소앙에게

천신만고 무릅쓰고 나를 찾아와  
 우리는 다정한 벗이 되었네.  
 헤어짐을 두고 다른 말 필요 없으니  
 희생 마다하지 않고 바른길 가야 하리.

68)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5쪽.

7. 贈張德秀\*(1919)

皎皎一寸心，同懷千載恨。  
大海鼓洪濤，肝膽常相照。<sup>69)</sup>

장덕수에게

맑고 밝은 심장 하나에  
천년 원한 품었네.  
바다에는 집채 같은 파도 일어도  
서로를 향한 진정은 변함이 있으랴.

8. 祝震壇旬刊(1920)

是非不明，真理日亂。外患內憂，足爲三歎。  
伊何人歟，揮灑柔翰。創辦旬刊，厥名震壇。  
振聳啟聵，國魂呼喚。日治日平，大同一貫。  
指導有方，公明評判。一紙風行，聲華彪煥。<sup>70)</sup>

진단 순간 간행을 축하하여

옳고 그름 분명치 않으니 진리가 날로 흐트러지고  
외환(外患)과 내우(內忱)로 한숨이 끊기질 않네.  
그대는 뉘신가, 붓대 휘둘러  
순간(旬刊)을 발행하니 그 이름 '진단'이라.

69) 황개민, 『三十七年遊戲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4쪽.

70) 黃志良選編, 『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129쪽.

외침으로 사람들 마음 일깨워주고 고향으로 나라 영혼 불러일으키니  
 치국과 평천하를 논함이 천하의 번영과 화평을 일관되게 하더라.  
 가르침에는 방도가 있고 평관함에는 공명이 있네  
 종이 한 장 바람처럼 하늘을 나니 그 이름 찬란하고 명망이 높네.

### 9. 哭金匡一志士\*(1920)

寒雲萬壘憑空起，黃郎報到金郎死。  
 漫道交友滿天下，如此相知能有幾？  
 憶昔相逢在離喪，無諂無驕互相尚。  
 不才一念爲憐才，誰知曆曆皆冤瘴。  
 經營慘淡記申郎，險阻艱難到故鄉。  
 爲孝爲忠辭老父，山長水遠路茫茫。  
 京華曆落無聊處，我幸停蹤復相遇。  
 爲君迭作名園遊，嚴子同盟歲雲暮。  
 殷勤告我心如箭，何日離弦雪長恨。  
 寒宵急訪熊與周，爲重英雄謀贈劍。  
 投卻毛椎事行伍，轉囑俞？薦東魯。  
 紛紛事變復歸來，鬱鬱終朝萬千苦。  
 我時南贛漫淹留，雁杳魚沉春複秋。  
 浪跡羊城孕雲降，一紙能消萬斛愁。  
 因知轉徙留燕趙，盤馬揮刀恥牛後。  
 相期叱吒走三軍，滿祝須眉展長嘯。  
 我倦南遊還歇浦，張郎密計終相許。  
 從違不一何與洪，一律金郎素知己。  
 方期日遠聊停頓，未蔔英雄動孤墳。  
 忽雲咯血忽雲亡，死別吞聲把天問。  
 浮生如電利那收，軀殼休論短與修。

終期待我滄洲會，雲閑天淡日悠悠.<sup>71)</sup>

김광일 지사의 죽음을 통곡하며

난데없는 찬 구름 첩첩이 몰려와  
김 군이 죽은 소식, 황 군에게 전해 듣네  
세상은 넓고 친구는 많지만  
이런 지기 몇이나 되더냐  
그제 날 친인의 장례에서 처음 만나  
아침과 교만 없이 서로를 공경했네  
나는 그를 마냥 인재라고 아껴왔건만  
일마다 원통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하는 일이 참혹하자 기록 남긴 신량은  
모진 난관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갔네  
효와 충을 갖추고 늙은 부친 이별하니  
산 넘어 물 건너 갈 길이 망망하네  
어수선한 북경은 따분한 곳이었지만  
다행스레 우리는 다시 만났네  
그댈 위해 다시 이름난 정원 노닐고  
그해가 다 가는 무렵 엄군이랑 뜻을 같이했네  
은근히 나에게 하는 말  
오래된 한 풀고 싶어 한시가 급하다네  
추운 밤 급급히 웅 군, 주 군 찾아보니  
영웅을 중히 여겨 격려할 길 도모하네  
붓대를 내 던지고 총칼을 잡으니  
유?에게 부탁해 산동성에 추천받네

71) 황개민, 『三十七年遊歐夢』, 『근대사자료』 122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근대사자료편집부 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71쪽.

분분히 사면 일자 또다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적해 온갖 일이 괴롭네  
 나는 그때 강서 남부에 몸을 피해 살면서  
 쥐죽은 듯 종적 숨기고 봄과 가을 보냈었네  
 양성(羊城)을 떠다니며 때를 기다리는데  
 전해온 편지 한 통에 온갖 수심 가져졌네  
 그대가 연조(燕趙) 땅에 옮겨 삶을 알았기에  
 남에게 뒤질세라 말 달리고 칼을 휘두르네  
 삼군을 호령하는 큰 기세 기대하고  
 사나이 큰 뜻 펼치기를 축원하네  
 남녘을 떠도는 삶에 지쳐 황포강(黃浦江)에 돌아와  
 장(張) 군의 비밀계략 마침내 운허했네  
 하 군, 홍 군은 생각이 서로 달라  
 변함없는 김 군만 나와 뜻이 통했네  
 기약한 날 많이 남아 잠시 쉬는데  
 영웅의 죽음을 어찌 예상했으랴  
 느닷없이 피 토하며 별세했다 전하니  
 영별에 목이 메어 하늘 향해 따져 묻네  
 번개같이 짧은 삶이야 찰나에 사라지거늘  
 육신 두고 길고 짧음 따져서 무엇 하리  
 창주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니  
 구름 드물고 하늘은 맑은데 해만 혼자 떠 있네.

#### 10. 題申睨觀汕廬圖(1928)

申字睨觀，名奎植，韓中患難友也。自日並韓後，便出亡中土，流離顛沛，以恢復爲職志，善漢文，並華語。曩歲與予遇於燕市，慨然訂交，大有同病相憐之威，而後相與吐肝膈，策危疑者累矣。迨新韓成立民國，設臨時政府於上海，睨觀迄

任國務總理，差足爲故人一雪幽憤。頃出汕廬圖示見，內設數十首，曆詠邦家變故，並師友死亡，與夫父子骨肉之生離死別，生生血淚，有類謝皋羽黃梨洲之風概。愛展其意而重賦數言，以志慨雲。

人世由來重風節，讀罷汕廬心掩咽。  
遺民孤子良足哀，山河破碎鵑啼血。  
等是天涯踏冰雪，檀黃互助連環結。  
相從患難冬複冬，梅花落罷橫雲裂。  
天明門轉幽鄉絕，長虹貫日丹青烈。  
尤期四海歌升平，水雲魚鳥鹹相悅。<sup>72)</sup>

#### 신예관의 산려도에 제사를 적노라

예관은 이름이 규식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환난을 함께 겪는 벗이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실시하게 되자 중토로 망명하여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광복에 뜻을 두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한문과 중국어에 능숙했다. 몇 해 전에 연경에서 나와 만나 서로 개연히 벗으로 사귀었는데 동병상련의 위엄을 진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서로 속심을 털어놓으며 위험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도모하여 고생하기도 했다. 새 한국이 민국을 수립하여 임시정부를 상해에 두었고 예관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나 옛 친구의 가슴에 맺힌 울분을 한 번에 풀기엔 부족하였다. 예관은 주저 없이 나에게 『산려도(汕廬圖)』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나라가 당하고 있는 변고, 스승과 벗들의 죽음 그리고 부자와 혈육의 생이별 등을 절절히 읊은 몇십 수의 시가 적혀있었다. 시는 피눈물로 얼룩져있었고 시풍은 흡사 사고우(謝皋羽)와 황이주(黃梨洲)의 시의 풍격과 유사했다. 이에 그들의 뜻을 헤아리고자 몇 구절 (보태어) 다시 읊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72) 황개린, 「題申晚觀汕廬圖」, 『先導月刊』第1卷 第2號, 1928년 6월, 10쪽.



인간 세상은 자고로 곳곳한 절개를 중히 여겨  
 『산려도』 읽고 나니 목이 메어오네  
 남겨진 이들이 참으로 애달파  
 산하가 부서지고 두견이 피 토하며 우네  
 천애지각 어디서나 빙설을 딛고 사니  
 단군 후예 황제 자손 손 잡고 같이 가네  
 환난을 같이할 제 겨울 가고 겨울 오니  
 매화꽃 지고 나서 비긴 구름 찢어지네  
 북두 돌아 날 밝으면 어두운 세상 끝나고  
 해를 췌 무지개에 붉은 노을 불타리라  
 더더욱 바라노라 천하에 승평가 올리고  
 구름 비긴 물 위에 물고기 노닐고 새 지저귀는 그 날을

### 11. 白凡志兄六秩大慶(1935)

邦家多難見忠誠，險阻艱難集一身。  
 肝膽相期千載重，金剛山上老人星。<sup>73)</sup>

백범 김구의 환갑을 축하하여

나라가 다난하여 충성심 드러낼 제  
 어렵고 험한 일들 한 몸에 쌓이네  
 일편단심 천년 중임 기약한 그대는  
 금강산 상상봉의 노인성일세

73) 黃志良選編 『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135쪽.

12. 賀新郎 題贈安恭根同志(1937)

俯仰情何切，  
看塵寰，紛紛成敗，  
循環無歇。  
往事思量千萬緒，  
怕聽猿聲淒咽。  
漫道是，心源澄澈，  
訪友天涯逾念載，  
對同仇，慣締同心結。  
爭起舞，  
輸肝膈。(上闕)

無端又聽罡風發，  
太無聊，跳梁小醜，  
橫行東北。  
萬裏中原存大恥，  
自屬男兒昭雪。  
更說是，興衰繼絕，  
貯看新韓成獨立，  
算杜鵑，不用長啼血。  
人共醉，  
金剛月。(下闕)<sup>74)</sup>

하신랑 안공근 동지에게

---

74) 黃志良選編『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141쪽.

양모의 정 그 얼마나 절실한가  
 속세를 바라보매 성패가 분분하니  
 끊임없이 돌고 돌아 거듭하누나  
 옛일을 돌아보니 사색이 천만 갈래  
 원숭이 울음소리 애처로워 귀를 막네  
 심성은 징명하다 말을 하지만  
 벼를 찾아 세상 해매 20년 넘었으니  
 같은 적에 맞서 하나로 뭉침에 익숙하네  
 앞다퉈 춤을 추며  
 폐부를 바치노라(上闕)

갑작스레 사나운 바람 소리 들리니  
 보잘것 없구나 하찮은 무리들이  
 동북에서 마구 날뛰고  
 중원에 기어들어 큰 수치 주었으니  
 남자라면 모름지기 원수를 갚아야 하리  
 하물며 나라의 명맥 끊겼으매  
 새로운 한국 독립 이루는 그날이면  
 망제의 혼이 변한 두견새라도  
 다시는 피 토하며 울지 않으리  
 그 날이 오면 금강산 달을 이고  
 모두가 만끽하리라 (下闕)

### 13. 賀新郎(1944)

甲申冬月有懷漢城明月樓悼念何相衍. 東趙素昂並致大韓民國金九, 金奎植,  
 李青天, 柳東月, 申翼熙, 李始榮, 趙畹九, 濮純, 金若山諸老友.

漂泊天涯路，  
憶當年，東征舞劍，  
雞鳴風雨。  
慷慨何郎談大計，  
須得深謀遠慮。  
雷起蟄，賢才何處？  
雪碾關山千萬裏。  
到龍潭，拜母登堂去。  
頃(傾)意氣，  
盟毆(鷗)鷺。

登樓一醉堪回顧，  
共陶然，臨風玉樹，  
鸞翔鳳翥。  
更有佳人弦解語，  
流水高山同賦。  
已卅載，依稀朝暮，  
多少知音傷早逝，  
數興亡，成敗渾無據。  
期再進，  
開雲霧。<sup>75)</sup>

하신량

갑신년 11월(음력)에 서울 명월루를 그리며 하상연을 애도한다. 조소앙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김구, 김규식, 이청천, 유동월, 신익희,

---

75) 黃志良選編 『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141쪽.

이시영, 조원구, 복순, 김약산 여러 오랜 벗들에게 보내드린다.

천애지각 떠도는 망명객 신세  
 큰 칼 휘두르던 그 옛날 돌아보니  
 비바람 몰아칠 때 새벽닭이 울었네  
 강개할사 하량이 큰 계획 펼치니  
 정녕 원대한 계획 얻었으리라  
 뇌기칩은 그 누구더냐, 현명한 인재 어디로 갔뇨?  
 눈길 따라 넘나든 관산 천만리  
 용담에 이르러 자당님을 배알했네  
 의기가 투합하여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삼누나.

누각에 올라 취하던 일  
 눈앞에 새롭네.  
 어울려 기뻐하던 그대 모습 너무나 멋졌었네.  
 춤사위는 아름다워 난과 봉이 나는 듯  
 미인의 가야금 소리 또한 뜻이 통하니  
 ‘고산유수’ 한 곡 함께 뜯었네.  
 세월이 흘러 어언 30년 어렴풋이 옛이야기 되었으니  
 슬프게 먼저 떠난 지기는 그 얼마였더냐.  
 흥망을 짚어보니 성패의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기대하노라  
 비구름 헤쳐 나아갈 그 날을.

■ 참고문헌

中國社科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部 編, 『近代史資料』總122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年10月.

\_\_\_\_\_, 『近代史資料』總124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年8月.

黃志良選編, 『黃介民遺稿集』(內部印刷), 2011.

韓薩任(趙素昂) 著, 『金相玉』, 三一印書館, 1925.

趙素昂, 『遺芳集』, 大同學會, 1933.

金東勳·李先漢 等編, 『申圭植詩文集』, 民族出版社, 1998.

김준엽 편, 『석린 민필호전』, 나남출판, 1995.

## Ide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Hwang Je-min and Korean Exiled Patriot

– Focusing on the text analysis of “37 years of Traveling Dream” –

JIN Bingmin\*

The Daedongdang was an international anti-Japanese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national equality and human equality” jointly established in Japan by Korean and Chinese patriots in 1916. And the Daedongdang headquarters had been moved to Shanghai in December 1917. Hwang Je-min, a key member of the Daedongdang Party, has supported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for decades.

Hwang Je-min also shared strong friendship with Korean patriots who exile in China in many ways.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Hwang Je-min and Korean exiled patriots had left an important page i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y have formed and united a deep consensus and will not only in revolutionary ideas and political ideologies but also in emotional aspects.

Focus on the Hwang Je-min’s “Dream of 37 Years Game,” which the first public memoir in China recent yea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ealities of ide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Hwang Je-min and Korean patriots by referring to other newly discovered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prose, poetry, and letters. In addition, the paper would like to raise a discourse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anbian University, China, professor

that the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ir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Hwang Je-min; Korean Exiled Patriot; the Exchange of Korea and China; Dream of 37 Years Game.